

# 나주읍성 2017년 옛모습 복원

서성문·동성벽 일원 국가 특별관리구역 지정 목소리 높아

예산 우선 배정 등 효과  
복합문 복원도 내년 마무리  
강인규시장 문화재청 방문  
예산 요청 등 복원사업 탄력

나주시가 민선 6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나주읍성 복원사업이 구체화되면서 4대문 중 하나인 서성문과 동성벽(국가사적 483호) 일원이 정부의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 등이 우선 배정되고, 관련 사업 지원도 대폭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읍성은 나주객사인 금성관을 중심으로 이를 에워싸는 동점문, 남고문, 서성문, 북방문이 있고, 이들 4대문을 연결 지어 쌓아올린 3.7km의 성벽으로 구성돼 있다. 나주시의 나주읍성 복원 사업 중 핵심은 나주읍성을 상징하는 4대문과 성벽을 복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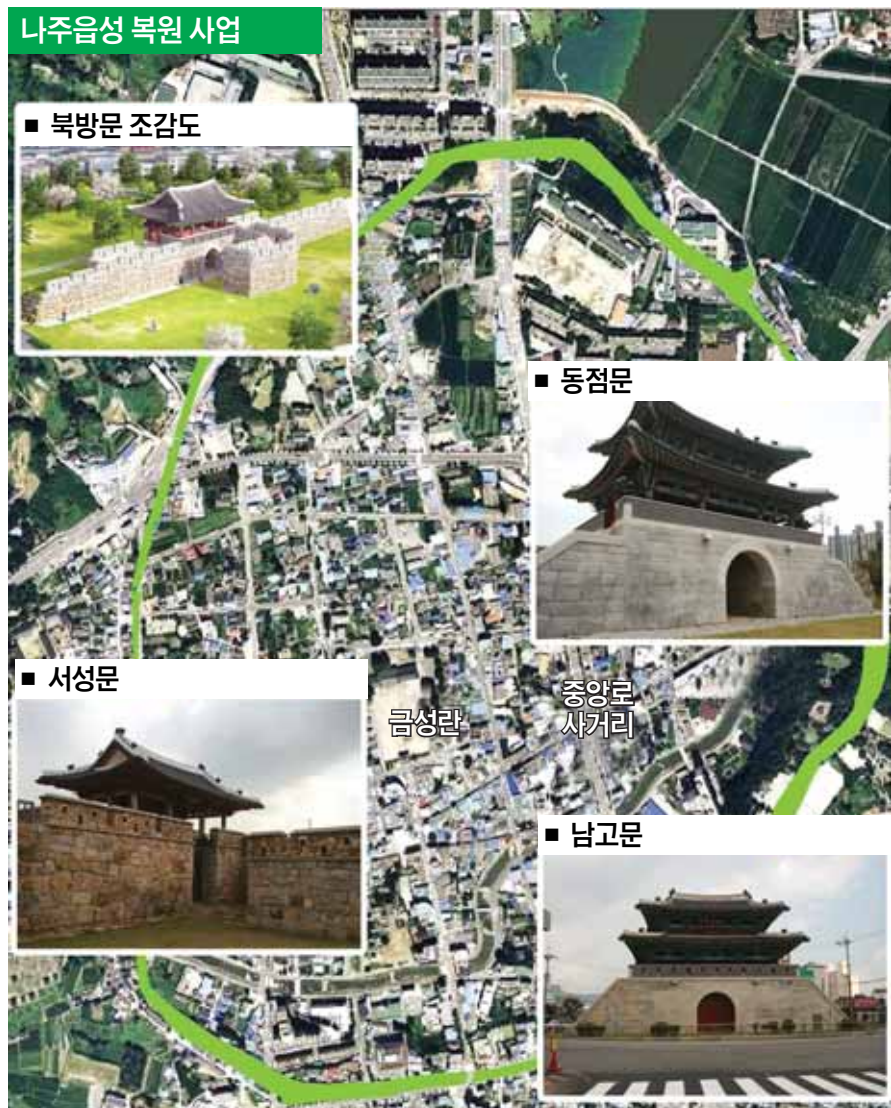
나주읍성을 나타내는 외곽 4대문 가운데 남고문과 동점문, 서성문은 이미 복원사업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북방문 복원도 내년 8월 마무리를 목표로 1차 발굴에 이어 2차 발굴도 10월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나주시는 4대문 복원과 동시에 학교 근처에 있는 서성문에서부터 시작되는 서성벽은 나주천 옆 우영아파트 앞까지의 800m 거리를 관광 상품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성벽은 허물어져 군데군데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로, 나주시는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한편 주변 정비 사업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로 조성하기로 했다.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남산에서부터 시작돼 동점문과 국도 1호선을 지나 석당간까지 800여m 구간의 동성벽은 옛 성벽 그대로 복원한다. 나주읍성 3.7km 성벽 중 나주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서성벽과 동성벽 구간으로 나머지 구간은 향후 고증을 거쳐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나주시는 이 같은 계획을 마무리할 경우 연 350억원 안팎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읍성 중 지난 6월 서성벽과 동성벽이 추가로 국가사적(483호)으로 지정됨에 따라 북방문 복원사업과 함께 서성벽, 동성벽 정비 사업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예산확보가 안돼 더디기만 했던 복원사업이 국가사적 지정에 따



라 복원사업비의 70%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됐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나머지 성벽 복원사업 등도 문화재청의 '나주시 역사문화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연동됨에 따라 정부에 국가 특별관리구역 지정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23일 나주읍성 복원 및 목관아 복원과 관련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건의하는 등 이유를 나열한 문화재청장을 방문하고 "계획기반형 나주읍성 역사문화 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서성문과 동성벽 일원을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나 청장도 "문화재청이 나주시를 시범도시로 지정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우선 내년도 사업비로 80억원 을 문화재청에 요청했으며, 이 예산이 반영될 경우 복원사업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다.

나주시의 정부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이번 발굴 조사 과정에서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연못이 발견되는 등 나주지역이 전체적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금성관 동측을 발굴조사 한 결과 지방관아 중에서 조선시대 연못 유구 중 최대 규모(64m x 20m)의 연못을 발견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시는 향후 연못지 내 유구와 비석군 주변을 정밀 조사하는 발굴용역을 추가 발굴 예정이며, 발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성관 복원 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현재 계획대로만 복원사업이 진행된다면 이르면 2017년께 나주읍성의 윤곽이 드러나고, 목사 고을 나주의 옛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혁신도시 전력거래소 사옥 '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동지를 틈 전력거래소 본사 신사옥(사진)이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공공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전력거래소 신사옥은 한국 전통가옥의 우수성과 최신 건축기술을 접목한 창

의 혁신적으로 디자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 최초로 설계 단계부터 3차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법을 도입한 점도 이번 수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IM 설계기법은 건축설계를 2D에서 3D로 한 차원 격상하고,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기술이다.

전력거래소 신사옥은 시공은 물론 건물유지관리 단계까지 BIM 데이터를 연계·활용해 국내 건설분야의 BIM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의 역할과 혁신도시의 관문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 등을 설계에 반영했다"며 "문 안의 문(Gate in gate)을 주제로 상징성을 담아 설계한 점도 이번 평가에 점수를 보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건축문화대상은 대한민국 건축의 본질과 시대 정서, 기능성 등이 구현된 건축물을 발굴·시상해 새로운 한국 건축문화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건축대제전이다.

박진표기자 lucky@

## '영산강 역사와 사랑 축제' 놀러 오세요

오늘 개막... 25일까지 행사 다채

나주 영산강의 역사를 감상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나주시는 "1일부터 25일까지 나주대교와 빛가람대교 사이에 조성된 역사단지 활용에 나주시민과 관광객에게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나주 영산

강 역사와 사랑 축제'를 개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조성된 역사길과 함께 다양한 주말 예술공연, 체험행사 프로그램 등이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볼거리로 가득한 주말 문화예술 공연으로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영산강 전국 가요제(17일)를 시작으로 전라필하

모니 오케스트라(18일) 공연, 제31보병사단 군악대 공연(24일), 나주 시립국악단과 합창단 공연 등 30여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또 아름다운 영산강변을 구경할 수 있는 황포돛배와 가족·연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바람개비·허수아비 만들기, 풍선아트, 가운 써주기, 캐리커처 등 각종 즐길거리도 마련됐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 나주시, 제2기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모집

나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월까지 2015년 제2기 나주시 도시재생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나주읍성권 재생사업 등에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분야는 도시재생활동자, 마을플래

너, 마을기업, 시민목수, 게릴라 가드너, 마을신문, 나주천 세밀화 등 7개 부문이다. 수강생은 분야에 따라 15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모집하며 도시재생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선발한다.

### ■ 제2기 나주시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제목	운영단체	일정	모집인원	참여대상
시민목수 중급과정 양성	두레박협동조합	매주 목요일 18:30 ~ 21:30	15	나주 읍성권 지역주민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나주읍성 주민협의체	매주 수요일 18:30 ~ 20:30	15~20	나주 읍성권 지역주민
나주천 무지개찾기 (세밀화)	빛가람기후변화 대응교육센터	매주 금요일 10:00 ~ 12:00	15	나주 읍성권 지역주민
영산포 마을신문 제작	영산포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매주 목요일 14:00 ~ 16:00	15~20	영산포 지역주민
영산포 게릴라 가드닝	조경공방 꼬바에네	매주 화요일 14:00 ~ 17:00	15~20	영산포 지역주민
마을기업 육성	도시재생지원센터	매주 화요일 19:00 ~ 21:00	15~20	나주 읍성권/영산포권/남평권 지역주민
마을 플래너 양성	도시재생지원센터	매주 월요일 19:00 ~ 21:00	25~30	나주 읍성권 지역주민

이런 프로그램은 지난 8월말 주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에 따라 마련됐으며, 마을플래너 과정과 마을기업육성과정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직접 운영한다. 나머지 프로그램은 나주읍성·영산포의 주민협의체, 빛가람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두레박 협동조합, 조경공방 꼬바에네 등이 분담·운영한다.

특히 마을 플래너양성 과정은 나주읍성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5년간 진행되는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한 것으로, 나주읍성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단위사업계획을 해당지역 주민과 함께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진상 나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이론교육뿐 아니라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만큼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신청서는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 또는 나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najucrcs)에서 다운받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najucrcs@naver.com)으로 접수 가능하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예향'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입니다.

지방지사 (061)		시내지국	
광 산 062)944-0444	남 원 시 063)626-1601	광 천 366-8375	
군 산 시 063)467-2500	순 창 군 063)653-0444	222-9440	
정읍 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남 부 652-0175	
		동 광 264-2012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흥 운 267-4748	
		백 운 673-4698	
		봉 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 하 675-6805	
		신 안 512-1732	
		양 산 571-7658	
		우 치 266-7601	
		용 봉 522-7752	
		우 산 512-8116	
		신 천 371-9818	
		월 곡 961-2339	
		중 앙 222-1896	
		충 흥 224-6604	
		진 원 673-1600	
		점 단 973-2900	
		중 장 224-8212	
		평 평 376-6511	
		풍 암 682-8112	
		하 남 959-1500	
		화 정 375-986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